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는 초로키 모빌홈
 가격: 19만 / Cash (1Bed + Den)
 위치: OC (비치 & 링컨), 초로키 모빌홈
 월 약 \$500 + 유틸리티
 10년후 \$211 + 유틸리티
213.505.8577 Mr. Lee

부동산 · 경제

BUSINESS · REAL ESTATE

전 당 포
 LC3019-0990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사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트럼프 행정부, ICT시장 빛장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빛장을 더 강화하고 있다.

지난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상무장관이 '적성국'으로 규정된 국가와 관련된 외국 ICT 기업으로부터 미 기업들이 부품을 수입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 입법안은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30일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에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적성국'으로 일단 중국을 상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안은 어느 나라가 적성국인지는 미 행정부가 규정토록 하고 있어 미국과 분쟁을 겪거나 미 행정부의 눈밖에 나는 국가의 기업은 언제든 이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입법안은 목시적으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블랙리스트'에 명단을 올린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을 겨냥했다. 적성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는, 미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통신장비를 수

입하는 것과 같은 민감한 거래는 반드시 상무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 간에 이미 계약이 끝났더라도 상무장관이 허가하지 않으면 수입은 불가능해진다.

상무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미국 기업이 '적성국'과 연관된 그 누구와도 민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서비스 거래를 할 경우 상무장관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적성국'이 어떤 나라인지, 민감한 기술이 어떤 것인지 규정하지 않고 대신 국방장관, 상무장관을 비롯해 행정부 수뇌들이 적성국과 민감 기술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 화웨이의 미국내 입지가 훨씬 더 좁아지게 된다.

이번 입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트럼프는 5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미 기업들이 거래할 때 상무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린 뒤 로스 장관에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IT 장비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미 3분기 성장률 2.1%로 반등

미국 경제가 3분기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치가 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말 발표됐던 속도치인 1.9%보다 높은 수준이자 당초 시장 전망치였던 1.9%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국은 분기별 성장률을 속도치·수정치·확정치로 세 차례 나눠 발표하는데 이날 발표된 것은 수정치로, 앞으로 확정치에서 숫자가 조정될 수 있다. 미국 3분기 GDP가 2.1%를 기록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반등했다는 신호로, 그동안 제기됐던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미국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3.1%, 2분기 2.0%를 기록한 바 있다.

미국 경제가 3분기에 반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였다. 3분기에 소비지출은 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부지출은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투자 위축세도 당초 예상보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투자(비주택 고정투자 기준)는 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기업투자는 2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경제 3분기 GDP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데다 4분기 관련 소비지출, 고용 지표도 좋은 상황"이라며 "이는 4분기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도했다. 이에 비해 CNBC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으로 인해 4분기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선 엇갈린 시각이 있지만 일단 미국 경제가 3분기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 2%대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쇼핑 시즌 배송 전쟁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미국 소매업계에 배송 전쟁이 후끈 달아올랐다. 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을 단 하루 만에 배송 완료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주요 업체들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아마존에 대적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동시에 녹장을 부리다 막판에 선물 배송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하루짜리 배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지난 28일 '뉴스웍'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월마트와 타겟 등 오프라인 영업에 기반한 전통적인 소매업체들이 올해 쇼핑 시즌 배송 시간 단축을 앞세운 고객몰이에 본격 나섰다. 이들 업체는 주문 다음날 배송을 위해 시스템 확충에 나서는 한편 온라인 주문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찾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초고속 배송 경쟁에 불을 댕긴 것은 아마존이다. 이미 10년 전 2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아마존은 지난 4월부터 하루 배송에 도전, 서비스 영역과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아마존이 하루짜리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투입한 자금은 4분기에만 1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뜰이나 아마존의 시장 잠식에 베팅 끝으로 내몰리는 기존의 유통 업체는 배송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월마트와 타겟을 필두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배송 서비스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여전히 아마존과 겨루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35달러 이상 주문'과 같은 다음날 배송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이들 유통 업체들은 하루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19달러의 연회비를 요구하는 아마존과 달리 유료 회원 가입 없이 빠른 배송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측면에서 아마존을 따라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ommercial & Residential 부동산 투자 및 1031 Exchange 도와드립니다.

독점 Home for Sale / Lease 독점

<p>Yorba Linda - 단독주택 1,780 sq.ft, 2,500 sq.ft. (LOT) 2016 Built (새집) * 최고 학교 (Lakeview Elementary, Yorba Linda Middle & Dorado High) * WholeFood, BlackGold Golf장 근방 \$739,000</p>	<p>La Mirada - 단독주택 3 Beds + 2 Baths 1,522 sq.ft, 6,500 sq.ft. Lot 새롭게 리모델링한 집 / 조용한 단층집 수영장 / RV parking / 과일나무 private BBQ and Patio \$679,000</p>	<p>Fullerton - Luxury LOFT 2 Beds + 2 Full Baths plus private ELEVATOR 1,849 sq.ft, 2 Car Attached Garage View View View!!! \$549,000</p>
--	--	--

<p>Fullerton - Down Town Soco Walk LIVE/WORK 1,850 SQ.FT. 1st Floor - RETAIL / OFFICE plus 1 Bathroom & Separate Entrance \$3,100 2nd Floor - 3 Beds + 3 Bath Condo [주상복합 주택]</p>	<p>La Mirada 4 Beds + 2 Full Bath 2,000 SQ.FT. \$2,700 새로 리모델링한 가정집입니다. [시세보다 아주 싼집] BIOLA UNIVERSITY 건너편입니다.</p>
---	--

마켓에 나오지 않은 집 삽니다

ONE GROUP REALTY
 www.OneGroupRealty.com
찰스 SELL OC HOMES
 Charles Lee/Broker
 Lic #01361071, 01861239
714.614.2426
 charleslee@onegrouprealty.com

짧은시간에 좋은가격으로 집 팔아드리거나 사드립니다!

독점 Coming Soon

독점 비즈니스 for Sale !!!
 Japanese Fusion All You Can Eat
 [North Orange County]
\$200,000
 Store size: 3,800 sq.ft. (코너 자리 & Easy Parking)
 * Asian & American [Mid - High Income Area]
 * 요식업 중심가
 * 현재 저녁에만 OPEN 합니다. (NO LUNCH)
 * Gross Income: 매상 Average \$65,000 ~ \$70,000

North OC 식당
\$315,000 Store size: 1,500 sq.ft. (Fullerton Down Town)
 * Asian & American [Mid - High Income Area]
 * Beer & Wine Lic Available * High Foot Traffic
 * 현재 저녁에만 OPEN 합니다. (NO LUNCH)
 * Gross Sale: Average \$50,000
 * Rent: \$7,000

Fullerton 단층주택
 4 Bed + 2 Baths, 2,190 sq.ft,
 10,600 sq.ft. Lot 3 CAR GARAGE
 * 좋은 학교 (Sunny Hill High & Parks Jr. High)
 * Laguna Lake & Parks 있는 조용한 동네
 * 현재 매물 없나온집 (Pocket Listing)
 * Upgrade Driveway, Laminate Floor
 Dual Paned Window, View
\$860,000 (가격 Nego 가능한집)